박준표 "올해 목표는 70경기 20홀드 "

KIA 투수

'박하전문' 불펜 베테랑 자원
커브·싱커 이어 체인지업 장착
아프지 않고 목표 경기 채우기
다음달 개막 맞춰 컨디션 조절 최선

완전체가 된 '박하전문' 전면에 박준표가 선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시즌 박준표, 하준영, 전상현, 문경찬이라는 막강 필승조를 얻었다. 올 시즌에도 이들은 KIA가 기대하는 특별 전력이다.

앞서 팔꿈치 통증으로 페이스를 조절했던 전상현이 지난 5일 홍백전 첫 등판에 나섰고, 15일에는 캠프 연습경기에도 나서지 못했던 하준영까지 마운드에 돌아오면서 '박하전문'이 완전체가 됐다.

박준표는 KIA와 상무에서 불펜과 선발로 전천후 활약하는 등'박하전문'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자원이다.

서재응 코치가 우선 꼽는 불펜의 핵심 전력이기도 한다. 서 코치는 올 시즌 마운드 구상을 하면서 불펜에 더 무게를 뒀고, 박준표에게 선발이 아닌 불펜 핵심이라는 역할을 맡겼다.

자신의 역할을 잘 아는 박준표는 '70경기 20홀드'를 목표로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개막 날짜와 경기 수가 나오지 않은 상황. 정상적으로 144경기를 하더라도 70경기는 상당히 높은 목표치다. 팀이 이기든 지든 자신이 필요하면 언제든 출격할 준비를 하겠다는 게 박준표의 이야기다.

박준표는 "많이 나가려고 몸을 많이 안 푸는 편이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나가고 싶다. 지고 있어도 나가고 싶다"며 "평균자책점은 운이 많이 따라야 하는 기록이다. 빗맞은 안타가 나올 수도 있다. 평균자책점보다는 경기수를 채우고 싶다. 성적으로 보면 70경기 20홀드가 목표고, 개인적으로는 아프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 위 용종 제거수술로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던 만큼 박준표에게 '건강'은 최우선 목표다. 지난 시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은 박준표는 몸관리에 신경 쓰면서 올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5월초 개막 가능성이 커지면서 페이스도 이에 맞춰 끌어올리고 있다.

박준표는 "지금 컨디션 올리고 있다. 운동량도 늘리고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에 경기하면서 밸런스가 안 좋았는데 이 부분도 좋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건강은 물론 '구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웨이트 트레이닝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준표는 "불펜은 좋은 구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날 운이 안 좋으면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구위가 좋아야 운이 더 많이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웨이트에 비중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브와 싱커로 상대를 현혹하는 박준표는 올 시즌 체인지업 장착을 준비하고 있다. 불리한 볼카운트에서도 체인지업을 구사하게 된다면 박준표는 수싸움에서도 확실한 우위에 설 수 있게 된다.

박준표는 "연습 때는 좋은데 다소 기복이 있는 것 같다. 경기에서는 맞기 싫으니까 안 던지게 된다(웃음). 체인지업 자체는 괜찮은데 편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며 "(최근에는) 투나씽 전에 타자들이 쳐서 체인지업을 던질 타이밍이 없었다. 제구가 잘 안 돼서 이를 잡고 있다. 체인지업을 신경 많이 쓰고 있다"고 밝혔다.

부상 없이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박준표에게 '박하전문'은 자부심이고 힘이다.

박준표는 "하준영도 돌아오고 (박하전문이) 함께 있으니까 좋다"며 "우리끼리 진짜 친하게 지내는데 같이 잘하자고 하면서 분위기도 좋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올 시즌 다들 잘할 것 같다.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던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25·27일 NC전 야간경기로

야간경기 적응력 향상을 위해 KBO 연습경기 중 일부 경기의 개시시간이 변경됐다.

KBO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편성된 2020 KBO 연습경기 중 일부 경기가 오후 6시 야간 경기로 변경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KIA타이거즈는 25, 27일 예정된 NC 다이노스전을 야간 경기로 치른다.

KIA는 25일에는 창원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27일에는 장소를 바꿔 챔피언스필드에서 NC를 상대한다.

앞서 KIA는 21일 삼성 라이온즈와 홈경기, 23일 한화 이글스와 원정경기를 갖는다. 두 경기는 오후 2시에 시작된다.

한편 KIA는 미리 야간 훈련과 야간 자체 연습경기를 하며 적응력 향상에 나선다.

17일 오후 1시 홍백전 11차전을 치른 뒤 18일 오후 6시 야간 훈련을 한다. 19일에는 오후 6시부터 홍백전을 펼친다.

/김여울 기자 wool@

KLPGA 투어 다음달 열린다

중단된 종목 중 첫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다음 달 재개한다.

KLPGA투어는 다음 달 14일부터 나흘 동안 제42회 KLPGA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또 '무관중'으로 할지 아니면 '유관중'으로 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로 국내 스포츠 일정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전 종목을 통틀어 여자골프가 가장 먼저 시즌 재개 일정을 확정했다.

프로야구는 신규 확진자 추세 등을 판단해 앞으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5월 1일 정규리그 개막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는 21일 KBO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 프로축구 K리그는 아직 개막일을 정하지 못했고 동계 실내 스포츠인 프로농구, 프로배구는 모두 2019-2020시즌을 중도에 종료했다.

애초 KLPGA 챔피언십은 이달 30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크리스 F&C 주최로 치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단 취소했던 대회다.

KLPGA투어는 코로나19로 대회 후원 기업이 줄줄이 대회 개최를 포기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대회를 고대하는 팬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기금으로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혜진

KLPGA챔피언십은 KLPGA투어 올해 개막전이다.

KLPGA투어는 지난해 12월 베트남에서 효성 챔피언십으로 2020년 시즌 막을 올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 한차례도 대회를 열지 못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총상금 23억원(우승 상금 1억6000만원)과 대회 운영비를 협회에 적립해 놨던 기금으로 충당한다.

/연합뉴스

PGA도 무관중 투어

코네티컷주 주지사 허용 방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만2000명이 넘는 미국 코네티컷주 주지사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대회를 갤러리 없이 연다면 허용하겠다고 밝혀 PGA투어 재개에 힘을 보탰다.

PGA투어가 5월부터 투어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네드 러몬트 코네티컷 주지사는 오는 6월25일부터 나흘 동안 코네티컷주 크롬웰에서 열릴 예정인 PGA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이 무관중이라면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코네티컷주 골프 팬이 가장 안전하게 PGA투어 대회를 즐기는 방법은 TV로 시청하는 것"이라면서 PGA투어는 당분간 무관중으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은 거두지 않겠지만, 대회 개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본 뉴욕과 인접한 코네티컷주는 뉴저지주와 함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약 30만명의 갤러리가 몰리는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은 코네티컷주에서는 대규모 행사로 꼽힌다.

대회 때마다 200만달러가 넘는 자선기금을 모아 지역에 기부한다.

/연합뉴스

코로나도 못 막은 '재키 로빈슨 데이'

코로나 푸드뱅크 재단에 4만2000개 식사 쿠폰 기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인 재키 로빈슨〈사진〉을 기리는 '재키 로빈슨 데이'를 맞아 많은 이들이 기부활동을 펼쳤다.

ESPN은 15일(현지시간) "전직 메이저리거 커티스 그랜더슨이 로빈슨의 뜻을 기린다며 4만2000개의 식사 쿠폰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푸드뱅크 재단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그랜더슨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계정을 통해 "야구가 중단돼 아쉽다. 그러나 재키 로빈슨 데이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야구 종목 자체보다 더 크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로빈슨의 일대기를 그렸던 영화제작자도 거액 기부 의사를 전했다.

MLB닷컴은 "영화 '42'의 제작자 토머스 툴이 이끄는 재단, 툴코는 재키 로빈슨 데이를 기념해 420만달러(약51억원)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코로나19로 타격받은 미국 흑인 사회와 의료단체의 의료기기 구매를 위해 사용된다.

영화 '42'는 1947년 4월 15일 메이저리그에 등장한 최초의 흑인 야구선수, 로빈슨에 관한 작품이다.

극심한 인종차별 문제에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섰던 로빈슨의 이야기를 그렸다.

로빈슨은 영화 내용처럼 미국 사회에 큰 울림

을 안겼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로빈슨을 기리며 1997년 그의 등 번호인 42번을 전구단 영구결번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2009년부터 4월 15일에 열리는 모든 경기에서 42번의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메이저리그 개막이 연기되면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로빈슨을 기리는 많은 이들은 기부 등 의미 있는 활동으로 재키 로빈슨 데이를 보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 크리스 아처, 뉴욕 메츠 마커스 스트로먼 등 수 많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자신의 SNS에 재키 로빈슨을 기리는 메시지를 남겼다.

/연합뉴스